

경제



5분기 연속 흑자·노사문제도 해결 잘나가는 금호타이어

1분기 매출 9586억·영업이익 437억·순이익 13억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가 5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그동안 경영의 발목을 잡았던 노사문제도 극적으로 합의해 경영정상화에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31일 올해 1분기(국제회계IFRS 연결 기준) 총 매출액 9586억원, 영업이익 437억원, 분기순이익 1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20.4%, 영업이익은 55.1% 증가한 것이며, 분기순이익도 지난해 적자에서 13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1분기 매출(9586억)은 24.9% 상승한데 반해, 영업이익(437억)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여파로 다소 떨어졌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자동차산업 호황에 따른 매출과 생산량 증가가 영업이익에 반영됐다”며 “특히 지난해 1분기 워크아웃 돌입으로 실적 기반을 보인 것과 대비돼 올해 상대적으로 실적 상승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출액 2조7020억원, 영업이익 2449억원을 달성했다. 2008년 3분기 이후 계속 적자를 지속하다 6분기 만인 2010년 1분기에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한 이후 5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했다. 금호타이어는 생산량 위주에서 품질 향상 중심으로 생산 방식을 전환하고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영업력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정훈과 함께 '2011 경제총조사' 지난달 23일부터 통계청이 실시중인 '2011 경제총조사'의 조사원으로 이인실 통계청장과 홍보대사 가수 김정훈씨가 31일 서늘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한 안경점에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 24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전국 330만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규모, 고용인력의 구조변화,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게 된다. /연합뉴스

금호터미널 매각가 '장부가 2314억+프리미엄'

이번 주 금호아시아나에 되팔아

금호터미널의 매각 가격이 장부가(2314억원)에 일정수준의 프리미엄을 더 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빠르면 이번 주 금호터미널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품에 다시 안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1일 금호터미널과 인수합병(M&A)업계에 따르면 금호터미널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대한통운의 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 등이 안전회계법인 등

3곳의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해 산정한 금호터미널의 매각 가격이 장부가인 2314억원에 금융비용 등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더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되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각 주관사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 대한통운 매각 가격에서 금호터미널을 떼낸 뒤 인수후보기업에 본입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한통운 매각 작업이 재개할 방침이다. 대한통운 매각 관계자는 “대한통

운·대우건설·아시아나항공 등 금호터미널 매각 관련 주체들이 선정한 외부평가기관들이 각각 공정가격을 산정해 제출했다”며 “이를 토대로 이번 주내 가격협상을 마무리한 뒤, 본입찰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업계에서는 금호터미널 매각 가격이 2010년 말 기준 장부가인 2314억원에 금융 비용 등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이 더해지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장부가와 실제 매각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일 경우, 2년 전 금호

그룹과 대한통운 간 거래의 적정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매각 가격이 장부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대한통운의 고가매입 논란이, 반대로 지나치게 높을 경우엔 금호그룹의 저가 매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호터미널 관계자는 “금호터미널의 자산 중 부동산은 공시지가가 하락해 가치가 떨어졌고, 반면 유스퀘어와 대형유통업체를 연계한 임대수익 등은 상승했다”며 “평가기관들은 이를 반영해 기업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공업 생산·출하 증가

광주·전남 4월 중 ... 증가세는 둔화

광주·전남의 4월 중 광공업 생산과 출하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했으나 지난해보다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1년 4월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 동향' 결과를 보면 광주지역 생산자제품 생산과 출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8.5%, 16.8% 증가했으며 지난 3월보다는 7.1%, 3.9% 감소했다. 주요 업종별 생산은 자동차(40.7%), 고무 및 플라스틱(19.5%), 기계장비(16.6%) 등이 증가했고, 의료정밀광학(-45.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24.6%), 전기장비(-11.0%) 등이 감소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또 4월 말 광주지역 생산자제품 재고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 감소해 재고를 출하로 나눈 재고율 지수는 62.6으로 지난 3월보다 4.2%P 상승했다. 전남지역의 4월 광공업 생산과 출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4.8%, 4.4% 증가했으며, 재고는 9.7% 증가했다. 주요 업종별 생산은 기계장비(97.3%), 기타 운송장비(23.3%), 1차급속(9.0%) 등이 증가했고 금속가공(-17.4%), 고무 및 플라스틱(-4.6%), 화학제품(-2.2%)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업 82% “최근 경제 여건 좋지 않다”

광주·전남 제조업체들 “6월 경기 위축”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으로 기업 10곳 가운데 8곳꼴로 최근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506개 기업을 상대로 한 최근 조사에서 국내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82.2%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여건이 나쁘다고 답한 비율이 85.6%(좋지 않다 67.9%, 매우 좋지 않다 17.7%)로 대기업의 75.3%(좋지 않다 66.3%, 매우 좋지 않다 9.0%)보다 높게 나타났다. 채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로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50.5%)를 가장 많이 꼽았고, 수출·내수 등 판매 부진(31.0%), 자금 사정 악화(26.7%)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경영의 어려움으로는 유가·원자재가 상승(59.1%), 원·달러 환율 하락(8.5%), 시중금리 인상(7.9%), 자금 조달(7.7%) 등이 꼽혔다. 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경기 전망도 그리 밝지 않았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기 전망과 관련해 절반이 넘는 55.3%의 기업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매우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4.6%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난 및 인건비상승 비중이 높아져 6월 기업경기 또한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지역 5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5월 광주·전남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결과를 보면 5월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93으로 전월보다 6포인트, 6월 전망은 97로 4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황BSI는 기준치 100보다 클수록

장래 상황이 좋다는 것이고, 100보다 작을수록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5월 매출BSI와 생산BSI는 전월보다 5포인트와 8포인트가 각각 하락했다. 반면, 채산성 BSI는 7포인트 상승했고, 6월 전망 매출BSI와 생산BSI는 각각 3포인트, 1포인트 각각 하락했지만 채산성 BSI는 9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30.3%), 내수부진(9.9%), 불확실한 경제상황(9.3%),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8.6%), 경쟁심화부족(5.0%) 등의 순이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빅3 백화점 판매 수수료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 백화점들이 입주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 현황 조사를 착수한다. 중앙회 측은 “서울·경기지역 롯데백화점과 현대·신세계 등 3대 백화점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300여 곳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 31일 밝혔다. 중앙회는 “최근 공정위원회가 백화점 수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우리 측에 협조를 요청한

만큼 우선 대표적인 백화점을 골라 실태를 알아보기로 한 것”이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대형 백화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는 평균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입주 상인들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대형 백화점의 적정 판매수수료인 20~25%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중앙회는 주장했다. 중앙회는 특히 의류와 같은 일부 품목은 30% 후반대까지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2142.47 (+48.68)
코스닥지수	484.54 (+4.02)
금리 (국고채 3년)	3.59% (+0.01)
원·달러 환율	1079.20원 (-1.00)
※수치는 전일 증가기준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뿔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기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약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민국의사회 의료포럼의회 제090204-중-4738호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다들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